

# 새싹 편지

2011. 4월호



## Woosong News

- 새내기 콘테스트 본선
- 유아동작교육 모의수업
- 유아문학 모의수업
- 체육대회 연습

## Our Story

- 우리가 원하는 MT
- 선배님 궁금해요:  
답변 Part.1



### 새내기 콘테스트

2011년 4월 4일 우송예술회관에서 새내기 콘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학교를 들어와서 처음 맞는 행사인 만큼 어떻게 하는 공금증과 함께 중학교, 고등학교와는 어떻게 다를까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감도 컸습니다. 다른 과는 응원도구와 구호준비도 많이 해 온 것



같아 보여서 재미있어 보였습니다. 먼저 학교 홍보 UCC를 봤습니다. 학교 홍보를 위해 만든 것인 만큼 모두들 다 잘 만들어

탄성을 자아내게 하였습니다. 기발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감상한 후에 11학년 새내기들이 준비한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춤과 노래를 선보이는 학생들의 멋진 무대를 보여주니, 무대를 보는 학생들의 환호와 호응도 덩달아 좋아지면서 분위기가 더욱 들떴습니다. 다른 학과 친구들의 무대를 보면서 실력에 감탄하고, 응원도 같이 하며 즐겼습니다. 새내기들의 축제인 만큼 신나게 즐길 수 있어서 재미있었습니다. 마지막 무대를 끝으로 시상식을 하고 나서 가기 전에 단체사진을 찍고 새내기 콘테스트의 막을 내렸습니다. 11학년 새내기들의 열정과 패기가 느껴지는 하루였습니다.

### 유아동작교육 모의수업

유아교육과 2학년 학생들은 유아동작교육시간에 배웠던 이론의 내용을 바탕으로 모의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각 조에서 한 학생이 교사가 되고 나머지 6명이 유아가 되어 발표를 하였습니다. 수업의 내용 중 첫 도입파트는 다양한 모양의 풍선들을 교사가 입으로 불어보고 바람을 빼보며 형태가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유아들과 풍선에 대한 경험을

얘기해보는 활동을 하였고, 전개부분에서는 유아들과 얘기해본 풍선들의 모습을 몸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여러 모습들을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표현해보는 등 재미있는 활동을 선보였습니다. 마무리



는 전개에서 표현이 독특하고 재미있었던 유아를 다른 유아 앞에서 다시 한 번 표현해보게 하며, 칭찬과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다른 조들의 모의수업을 마치고, 각조의 모의수업에 대한 다른 조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교수님께서 말씀해주는 모의수업의 잘한 점과 부족한 점을 들어보면서 올바른 동작교육에 한걸음 다가 설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선생님이 되어 수업을 계획해보고, 수업을 받아 봄으로써 동작 2학년 학생 모두에게 훌륭한 유치원 선생님이 될 수 있는 중요한 한걸음을 떼어보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 유아문학 모의수업

유아교육과 2학년 학생들이 유아문학시간에 모의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모의 수업은 처음에 조별로 모여 토론을 하면서 교육계획안을 짜고 그 후 교수님을 찾아가서 상의도 하고 참고사항들을 고친 후 본 수업시간에 이루어진 활동이었습니다. 각 교구들을 가지고 유아에게 동시를 들려주는 활동으로 도입-전개-마무리의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이라 말하는 말투, 자세, 표정들에서 어색함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모의수업을 한번 해보니 실제 내가 현장에서 교사로서 어떻게 수업을 계획하고 진행해야 할지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친구들이 수업을 하는 모습을 보며 감상하고 나름대로 평가 해보기도 하며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었던 수업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모의수업을 진행하여 교수님으로부터 더 고쳐야 할 점과 주의할 점, 참고사항들을 꼼꼼하게 고쳐나가니 이제야 조금이나마 유아교사로서의 면모가 나타나 보였다. 앞으로도 다른 모의수업을 할 기회가 많이 있을 텐데 시간이 갈수록 더욱 발전해서 실제 현장 수업을 할 때 훌륭하게 평가 받을 수 있고 아이들에게 좋은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체육대회 예선연습을 하면서..

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 학생들이 체육대회 연습을 시작하였습니다. 5월에 있을 예선전을 위해 유아교육과 학생들이 모두 모여 서로의 실력을 뽐내 보였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잘하는 종목을 찾아 어떤 종목을 정해야 할지 생각하고 결정하였습니다. 연습에서는 여러 번의 선수선발 과정을 통해 실력이 좋은 선수들을 뽑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 꼭 참여하고 싶었지만 안타깝게도 참여하지 못하게 된 선수들은 아쉬웠지만 다른 종목에 참여를 하거나 응원을 하며 체육대회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체육대회는 건축공학과 학생들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을 같이 모여 체육대회 연습을 하는 학생들을 보니 체육대회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연습을 하다 때로는 다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서로를 위로하며 참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 학생들의 의지가 대단해 보였습니다. 이번 체육대회 연습은 학생들이 서로 모이는 시간이 없었던 만큼 A, B반 모두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았고, 다른 반이었던 만큼 서로 친해지지 못한 친구들끼리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았습니다.



### 우리가 원하는 MT는?

11학번 신입생들에게 MT를 가고 싶은 장소에 대해 조사를 했습니다. 유아교육과 A, B반 합쳐서 총 53명의 새내기들이 조사에 응해 주었습니다. 후보에는 제주도, 부산, 가평, 무주, 춘천이 올랐습니다. 그 중 새내기들이 가장 가고 싶은 장소는 29표로 부산이 압도적 이었습니다. 이유는 “시원한 바다가 매력적인 해운대에서 추억을 남기고 싶다.”, “부산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가보고 싶다.”, “부산 여행이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다.” 등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3위인 제주도는 “너무 멀다” “돈이 많이 든다.” 등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한 MT에서 꼭 하고 싶은 것은 동기들과 친목을 다지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선배님들과 만날 기회가 없어 선배님들과의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시간을 원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게임이나 술자리가 너무 심하지 않았으면 하는 걱정 소리도 있었습니다. 1학년들은 동기, 선배님들 그리고 교수님들과 함께 가는 첫 여행인 만큼 기대가 크다고 했습니다. 첫



A반 총 53명 설문 조사 결과

MT의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고 싶어하는 11학번들의 소망이 아주 큰 것으로 보여 졌습니다.



## 선배님 궁금해요 : 답변 part.1

지난번 3월호에서 11학년 학생들이 선배님들에게 학교생활에 대한 궁금한 점들을 물어 봤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그에 대한 답변을 가져 보는 시간을 가지기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질문이 너무 많은 관계로 신입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선별해 답변을 준비 했습니다. 선별을 해도 내용이 많아 두 부분으로 준비 했습니다.

1. 유아교육과 취업할 때 자격증은 많이 필요한가요?

-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유치원에 취업을 할 때 종이접기 자격증, 동화 구연 자격증 등 자격증이 많이 필요할 것 이라는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교수님들이 말씀으로는 유아교육 현장에서는 도움은 되겠지만 꼭 필요한건 아니라고 하셨어. 하지만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고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된다면 자격증을 준비하는 것도 좋을 거야~

2. 선배님들은 식사는 주로 학생식당에서 하시나요?

- 정말 밥 먹으러 갈 곳이 없거나 시간이 없을 때 이용하지! 가끔 학생식당 밥이 맛있을 때도 있지만 항상 가면 똑같은 맛이래.. 만약에 가도 우리 과 학생들을 보는 일은 드물 거야. 학교 앞에 맛있는 음식점들이 더 많으니까 아무래도 그쪽으로 발길이 가는듯해.

3. 구연동화도 배우나요?

- 구연동화를 딱히 배우는 건 아니지만 2학년 전공과목 중에 유아 문학이라고 있는데 수업내용이 동화 들려주기, 동시 짓기, 동시지도 등이 있어서 구연동화는 동영상을 통해 접할 수 있을 꺼야.

4. 동기들 앞에서 동요를 불러야 하나요?

- 유아동작과 유아음악이라는 전공과목을 통해 모의수업을 하게 되는데 조를 나눠서 반 아이들 앞에서 울동을 직접 창작해보고 보여주는 활동을 해~ 우리도 처음엔 부끄럽고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가 준비한 걸 친구들한테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것이 정말 교사가 된 기분이 들어~

5. 유아교육과 에서는 손재주가 좋아야 하나요?

- 아무래도 손재주는 조금 있어야 될 거 같아. 만들고 그리고 하는 일이 많으니까 손재주가 있어야 좋을 거 같아. 하지만 손재주가 없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 꾸준히 연습하고 노력하면 장족의 발전이 있을 꺼야 너무 걱정하지 마. 난 걸모습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러니 훌륭한 유아교사의 자질을 키워나가자.

6. 임용고시 준비는 언제쯤부터 하나요?

- 우리도 아직은 임용고시에 대해 많은 정보가 있진 않아. 하지만 우리가 지금 배우는 과목 모두가 임용고시에 나오는 것이니 꼼꼼히 공부하고 잘 기억하면 좋겠지. 시험 때에만 공부하지 않고 평소에도 잘 정리해놓고 공부한다면 후에 임용고시를 준비할 때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봐

# 유아 상식

## 잘못 알고있는 유아 상식!

### ■ 대소변을 빨리 가릴수록 좋다

대소변을 빨리 가린다고 머리가 더 좋은 것은 아니다. 신체 발달과 지능은 상관없다. 대소변 가리기는 만 18개월부터 24개월 사이에 시작하는 것이 좋은데, 엄마의 욕심에 18개월 이전에 시작하면 오히려 더 늦게까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또한 조금하게 서둘러 아이를 채근하는 것도 아이에게 스트레스가 되므로 조심한다. 하지만 다섯살이 넘어서도 야뇨증이 지속되면 소아과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 ■ 지저분한 것은 만지면 안 된다

아이들은 지저분한 것도 거리낌 없이 만진다. 그러면 엄마들은 혹시 병균이 옮지 않을까, 옷이 더러워질 텐데 싫어 아이들에게 꾸중을 한다. 하지만 지저분하다고 무조건 만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 탐구하고 싶은 욕구를 억누르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엄마가 보아 건강에 해롭지 않다면 참고, 어질러 놓은 것은 스스로 정리할 수 있게 도와준다. 놀 때는 맘껏, 정리할 때는 스스로 하는 원칙을 지키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 숨은 그림 찾기



<찾을 그림>

버섯, 갈래기, 고추, 부엌칼, 호날표, 못

## 4단 만화



<벌레 잡기>

By. 도바기

### <발행처>

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 <http://childedu.wsu.ac.kr>  
042) 630-9360 대전광역시 동구 자양동 17-2 (300-718)

<발행인> 성원경 <편집인> 이예지

### <만든이>

- \* 박민정 \* 안선경 \* 이예지
- \* 김연수 \* 문진아 \* 송하나 \* 박혜령
- \* 김민아 \* 이은정 \* 조아름